상용차 분야 자율주행 실증지역 메카 부상

전북도, 1단계 새만금주행시험장 구축 · 2단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순항
3단계 자율협력주행 화물 · 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사업 정부예산안 반영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이 국내 최초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기반 구축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도가 상용차(화물차) 자율주행 실증지역으로 확고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도는 저속에서 자율주행 기능검증을 위한 '새만금주행시험장(1단계, 2015~2018년)'을 이미 구축한데 이어, 고속의 성능검증을 위한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2단계, 2020~2022년)'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실도로를 활용한 최종 실증 단계인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사업(이하 '자율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신규 반영되면서 상용차에 특화한 자율주행 전주기 연구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자율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북도가 명실상부한 상용차 분야 자율주행 실증지역 메카로 부상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5년간 440억 원이 투입되며, 군산항/산업단지에서 자동차 전용도로(21번 국도)를 거쳐 군산IC까지 약30km 구간에 실증을 위한 도로환경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을 설치하고,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3단계 사업인 '자율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일반차량과 혼재돼 있는 실도로 실증환경까지 구축하게 되면 국내 최초로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실증이 동일지역 내에서 완벽하게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세계적인 수준의 상용차 자율주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분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북을 자율주행차와 상용차 산업의 메카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차 전환을 대비하고 있는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김제 특장차전문단지, 전주완주 수소도시 등과도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구상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용차 화물 물류서비스 특화 자율주행차 분야 세계일류 허브로 발돋움 시켜, 전북도 주력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워 나간다는 복안이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도가 최근 발표한 신산업 지도가 성공적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 같은 미래를 대비한 수준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사업들이 많이 추진돼야 한다"며 "전북도 상용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기간산업으로 위상을 찾음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마지막 국회단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양봉농가 등록률 84%

1454농가 등록 완료

전북도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에 따른 도내 양봉농가 등록대상 1,724농가 중 8월말 기준 1,454농가가 등록을 완료해 등록률 84%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전체 양봉농가는 2020년말 기준 2,225농가다.

이 중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꿀벌 30군 이상, 혼합 사육 시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 1,724농가가 등록대상이다.

도내 양봉농가 등록률(84%)은 전국 시도 평균(60%)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는 올해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 양봉농가가 포함된 것을 포함해 각 시.군 담당부서 및 양봉협회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 가능했다고 전북도는 평가했다.

도는 올해말까지 양봉농가 지도·점검에 나서 농가등록을 독려하고, 2022년부터 미등록 농가가 양봉산물·부산물을 생산·판매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양봉산업 육성 5개년(2021~2025) 계획을 중심으로 세밀한 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삼락농정위원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 발전방향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양봉농가 등록으로 산업관리 체계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내년부터는 양봉 관련 보조사업을 등록농가로 한정해 추진하는 등 등록농가 중심으로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양봉농가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2020년말 기준 등록완료 농가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계속해 도내 거주 및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294농가에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유호상 기자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전북도, 4억4800만원 예산 추가 확보… 지원 대상 · 시간 확대

전북도가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시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도는 올 하반기 사업비 4억4,8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국비 3억 1,300만 원), 90명의 중증 장애아동을 추가 지원하고,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 지원 시간을 840시간으로 120시간(월평균 10시간)만큼 추가 확대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최대 50시간까지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도는 지원 규모 확대가 만 6세 미만 우선 지원 및 지원시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기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원 인원과 시간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아동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김 황백화' 예방 위해 양식 어장 예찰 대폭 강화

전북도가 '김 황백화'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양식 어장 예찰을 월 4회로 대폭 강화한다.

도는 대표 양식품종인 김 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김 황백화 현상 예방을 위해 양식 어장 예찰과 해수 분석을 기존 월 2회에서 4회로 대폭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산시의 개야도와 고군산군도, 부안군의 도청리와 치도, 고창군 만돌 등 22개 정점을 대상으로 어장 기초환경조사(수온, 염분농도, pH, 투명도)와 영양염류(암모니움, 아질산염, 질산염, 인산염) 분석을 실시한다.

도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어촌계, 생산자단체에 신속히 통보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김 양식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황백화 현상'은 해수 중 용존무기질소가 기준치 이하(0.070mg/L)일 때 나타난다.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면 김 엽체의 변색 및 탈색으로 품질과 생산량이 감소해 어업인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유호상 기자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북선수단 발대식 가져

전북도는 2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선수단 대표 2명, 도 기능경기위원회 관계자 등 방역수칙에 맞춰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북선수단 발대식을 가졌다.

전북도가 다음 달 4일부터 대전에서 열리는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36개 직종에 95명의 선수를 내보낸다.

도는 2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선수단 대표 2명, 도 기능경기위원회 관계자 등 방역수칙에 맞춰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북선수단 발대식을 했다고 밝혔다.

전북선수단은 전북도 기능경기위원장인 송하진 지사에게 훈련 경과를 보고하고 출정 신고를 했으며, 송 지사는 이들에게 전북선수단기를 수여했다.

이날 선수단 대표로 참석한 전기제어 직종 조인호 군(전주공고)과 화훼장식 직종 김아카시아 양(립스꽃예술학원 강사)은 함께 다짐문 낭독을 통해 출전선수 모두가 우수 성적 입상을 위한 필승 의지를 다졌다.

그간 도는 지난 4월 전북지방대회를 거쳐 우수선수를 발굴해 맞춤형 훈련을 했고, 종합전략 수립과 전략 직종 육성 등을 통해 종합 성적 6위를 목표로 준비해 왔다.

한편,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직업훈련과 기능 수준 향상을 위해 열리는 대규모 전국행사로 오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대전에서 열린다.

대회에는 전국에서 50여 개 직종에 1,9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금메달 1,200만 원, 은메달 800만 원, 동메달 400만 원의 상금과 자격증 실기시험 면제 특전이 제공되며, 직종별 상위득점자 2명(팀)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권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악조건 속에서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오랫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전북 기능인의 우수한 숙련 기술의 위상을 높여달라"고 격려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소방,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전북소방본부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으로 대량위험물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정 수량보다 3000배 이상의 많은 양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대상 중 완공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위험성이 큰 위험물시설 23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 사항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의 근무 실태 ▲제조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위험물 시설에서 사고발생 시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합동검사 결과 문제점 발견 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김양옥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담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